

“낮은 주파수”로 말하기:*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of Douglass, an American Slave
*Invisible Man*의 Trueblood 에피소드에 나타난 인종적 타자의 모습

윤 성 호

I. “호명된” 주체와 “타자의 타자”로서의 주체

흑인 문학에 대한 자각과 의식이 태동하기 시작한 19세기 전반기의 문학적 성과를 보여주는 노예설화(slave narrative)는 미국의 자서적 문학과 년필선의 전통 그리고 미국소설의 리얼리즘 대두에 기여한 공헌으로 인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특히 노예설화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더글러스의 *Narrative*¹⁾는 출판 직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면서 1855년에 *My Bondage and My Freedom*으로, 그리고 1881년에는 *Life and Times of Frederick Douglass*라는 제목으로 개정과 증보를 거듭하며 계속 출판되었다. 더글러스 자신은 개인적으로 저널리즘 분야에 종사하며 사회적 명성을 쌓았고 만년에는 미국 정부의 공직을 역임하기도 하는 등 노예 출신의 흑인으로서서는 상상하기 힘든 위치에 올랐다. 흑인에 의해 쓰여진 이러한 노예설화가 출판이라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일반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비인간적인 인종차별의 실상을 전하고 그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노예제의 참상을 전함에 있어 노예제를 직접 겪은 도망노예(fugitive slave)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예설화가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해진다. 도망노예에 대해 그토록 집요한 추적과 ‘사냥’이 이루어진 것은, 도망노예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앞서 ‘진실의 전달자’로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파급 효과에 대한 남부의 염려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그런데 도망노예에 의해 쓰여진 노예설화가 백인 독자에 의해 읽혀지는 과

*2000학년도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우수논문상 수상 논문.

1) Frederick Douglass,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Penguin, 1982). 이 책의 본문 인용은 이하 *Narrative*로 표기함.

정에는 백인과 다름없는 문자능력(literacy)을 지닌 흑인 작가의 이미지가 당대 백인들이 흑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형성하고 있던 열등하고 무지한 존재로서의 흑인의 스테레오타입과 충돌하는 문제가 개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노예설화에 담긴 내용의 진위 여부마저 의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더글러스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텍스트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²⁾

1830년경부터 미국 내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인종적 타자 만들기의 작업은 골상학적 증거의 수집 등을 통한 과학적 인종주의(scientific racialism)와 노예제 유지를 정당화하는 성서의 자의적인 해석 등을 통해 19세기 중반에는 이미 미국 내에 상당한 지지세력을 얻고 있었다.³⁾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심지어 노예폐지 반대자들로부터 노예설화가 백인 노예폐지론자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예설화에는 대중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지닌 백인 노예폐지론자의 서문이 함께 실리는 관행이 성립하게 된다. *Narrative*에도 *Liberator*지의 편집자이며 저명한 노예폐지론자인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의 서문이 예외 없이 실려있다. 개리슨이 서문에서 의도한 것 역시 백인 독자가 지니고 있던 흑인 작가의 실재 여부와, 노예설화에 담긴 노예제 참상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⁴⁾ 백

2) I prefer to be true to myself, even at the hazard of incurring the ridicule of others, rather than to be false, and incur my own abhorrence (*Narrative*, 75).

3) Reginald Horsman, *Race and Manifest Destiny: The Origin of American Racial Anglo-Saxonism* (Harvard UP, 1981), pp. 139-57 참조. 신세계에서의 선민의식을 확보하는 과정에는 아메리카 이주민들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인식하기 위해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흑인노예를 타자화시키는 작업이 개입하게 된다. 홀스먼은 이 두 과정을 각각 "the racism of extermination"과 "the racism of exploitation"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는 과연 피부색과 같은 인종적 차이가 인류 발생의 출발점부터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기후와 환경에 의한 분화인지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홀스먼은 1850년경부터 환경과 기후에 의한 인종 분화를 거부하고 여러 인종의 '다중적 창조설(polygenesis)'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다중적 창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종간 두개골의 크기 등을 통계학적으로 정리하여 인종적 우열을 논하는 유사과학적 작업이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라는 동일한 인류 조상에 대한 성서의 근거를 뒤집기 위한 이론적 작업이 병행되어야만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자유를 향한 신세계의 창조라는 건국 이념의 수사학이 그 도덕적 딜레마의 부담을 덜기 위해 타자라는 명백히 허구적 개념을 조작해내고, 그로부터 유래한 인종적 우열에 기반해서 타자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정당해 내는 일련의 용의주도한 작업이다.

4) "I am confident that it is essentially true in all its statements; that nothing has been set down in malice, nothing exaggerated, nothing drawn from the imagination; that it

인에 의해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노예제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 흑인 도망 노예에 의해 쓰여진 노예설화가 그 존립의 근거를 백인에 의해 보장받는 이런 상황은 미국 내에서 인종적 타자로 규정된 흑인들이 언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알튀세(Louis Althusser)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주체로서의 구체적인 개인들을 구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한 주체의 범주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단지 구성하고 있을 뿐”⁵⁾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나’ 혹은 ‘너’와 같은 명확한 주체의 개념조차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효과가 된다. 따라서 모든 주체는 실상 ‘언제나 이미(always and already)’ 이데올로기에 의해 “호명 받아(interpellated)” 주체라는 환상을 부여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설명되는 것은 인간의 실재 조건이 아닌 현실과 개인 주체 사이의 ‘상상적’ 관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상적 왜곡은 현실의 일정한 종교적, 도덕적 형식 속에 표현됨으로써 모든 주체에게 자신을 적어도 언제나 이미 주어져있는 개별적 실체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⁶⁾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The Bluest Eye*에서 페콜라(Pecola)가 보여주는 푸른 눈에 대한 비극적 집착은 바로 미국사회 내에서 흑인을 인종적 타자라는 주체로 규정한 이데올로기의 효과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데올로기는 현실에 있어 또한 백인/흑인, 아름다움/추함이라는 이분법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 가상적 관계가 문제시되는 것은 알튀세의 지적대로 이러한 효과가 교육, 종교, 혹은 페콜라의 어머니가 현실의 도피처로 삼던 영화와 같은 구체적 형식을 통해 현실적 힘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에 의해 ‘언제나 이미’ 규정 당하고 있는 주체가 그 가상적 왜곡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방

comes short of the reality, rather than overstates a single fact in regard to slavery as it is.” (Narrative, 38).

- 5) Louis Althusser,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 Ben Brewster(N.Y.: Monthly Review Press, 1971), p. 171.
- 6) 알튀세에 의하면 “주체의 관념은 구체적 의례가 지배하는 구체적 실행 속에 자리한 구체적 행동이며, 구체적 의례 자체는 구체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되고, 그 구체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그 주체의 관념이 유래한다.”, Althusser, p. 169. 예를 들면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조차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 부모와 주변의 기대에 의해 이러저러한 한 주체로 규정된다. 태아가 출생한 후에도 그가 주체로 활동하게 되는 구체적 공간 역시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된 곳이 되는 셈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체의 개념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언제나 이미 주어져게 된다.

법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알튀세의 인식은 이 같은 의문에 대해 과연 어떠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이러한 질문에 앞서 우리는 알튀세의 “호명” 주체의 개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문제점은 이데올로기적 규정 속에 호명하는 주체와 호명 당하는 주체 모두 포함이 되는가,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호명”은 호명하는 주체로부터 호명 당하는 주체를 향하는 일방의 움직임만을 의미한 것인가 하는 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배와 피지배의 구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인종차별의 현실 속에서 만약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억압을 당하는 대상 모두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구조 안에 놓일 때 억압의 굴레를 탈피하려는 모든 노력은 저항의 대상을 설정하기 힘든 점으로 인해 출발점에서부터 그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만다. 물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도식적 구분을 통해 지배의 권위를 단순히 배격하고 극복하려는 구도를 설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알튀세의 주체 개념이 보여주듯 인종적 타자화의 과정에는 그 상상적 관계를 위장하는 교묘한 효과의 전략이 스며들어 있고, 이러한 타자화의 현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촘촘한 그물 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은 보다 섬세한 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항 담론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알튀세의 논의를 모호함을 위장한 회피의 움직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주체의 효과를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단순한 주/객 구도를 넘어선 다른 지평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하나의 개념은 다른 개념을 연기시키고 차별화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차별화 되고 연기된 개념으로 존재할 뿐이다. 하나의 개념은 차연 속의 타자가 되며 타자의 차연이 된다.”⁷⁾라는 데리다의 논의로 넘어가기로 한다. 인용한 대목은 데리다에게 있어 ‘같음’은 ‘다름의 다름’이 된다는 “보충(supplement)”의 개념을 염두에 두면 그 이해가 보다 용이해진다. 너는 나에게 대해 타자이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자기동일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데리다는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왜냐하면 그 같은 생각이야말로 그의 일관된 공격 대상인 원천에 대한 순수한 의미 혹은 존재에 대한 믿음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데리다에게는 너의 타자로서의 내가 바로 ‘나’의 개념이 된다. 따라서 ‘나’라는 자기 동일시적 개념은 그 자체에 이미 타

7) Jacques Derrida, “Différance”,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P, 1982), p.18 “One is but the other different and deferred, one differing and deferring the other. One is the other in différence, one is the différence of the other.”

자성을 포함한 타자의 타자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19세가 미국 내의 유사 과학적 인종주의와 성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경향은 바로 그와 같은 자기 동일시적 보호본능, 다시 말해 백인의 근원적 고유성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은 데리다식의 해석을 따르면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인종적 타자화 담론의 주체로서의 백인의 존재는 이미 그 자체에 타자성을 포함한 타자의 타자이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이러한 인식은 식민주의 담론에 있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단순히 권력의 행사 주체와 대상으로 구분짓지 않으려는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지배자가 전략적으로 그 속에 위치하는 일 없이 피지배자만 식민지담론 내에 위치되는 일은 없다”⁸⁾라는 호미 바바(Homi Bhabha)의 인식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지배자의 상상적 관계의 호명에 대해 피지배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의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그것은 지배/피지배의 도식적 권력 구분 속에서 소외와 박탈에 대한 저항의 단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도식적 구분으로부터 출발한 전략은 결국 지배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증오와 파괴의 욕망을 가져오거나, 혹은 그 권력을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려는 왜곡된 욕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피하는 길은 결국 타자의 개념 설정에 담긴 왜곡된 상상적 관계⁹⁾를 드러내는 작업뿐 아니라, 동시에 상상적 ‘호명’을 통해 그 같은 타자화를 수행하는 주체에 내재된 ‘타자의 타자’로서의 타자성을 드러내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우월한 지배자로서 자기 동일시적 존재가 숨기고 있는 ‘타자의 타자’로서의 속성이 드러날 때 비로소 ‘호명하는’ 주체에 대한 인종적 타자의 모순된 애증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출발점으로 본 논문에서는 인종적 타자가 지배담론 내

8) Homi Bhabha, “The Other Question,” *The Location of Culture*(N.Y.: Routledge, 1984), p. 67.

9)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는 종족 중심주의가 행사하는 인종차별의 가상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No nation, that is, no national state, has an ethnic basis, which means that nationalism cannot be defined as an ethnocentrism except precisely in the sense of the product of a *fictive* ethnicity. To reason any other way would be to forget that ‘peoples’ do not exist naturally any more than ‘races’ do, either by virtue of their ancestry, a community of culture or pre-existing interests. But they do have to institute in real(and therefore in historical) time their imaginary unity against other possible unities.” Etienne Balibar,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trans. by Chris Turner(N.Y.: Verso, 1991), p. 49.

에서 취하는 저항과 전복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는 더글러스의 *Narrative*와 랠프 엘리슨(Ralph Ellison)의 *Invisible Man*¹⁰⁾(1953)이다. 더글러스의 경우는 이미 논의한 대로 흑인 문학에 대한 의식과 자각이 최초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의 인종적 타자로서의 흑인의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반면 흑인문학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전후 미국소설의 최고작 중 하나로 그 성과를 인정받는 엘리슨의 소설은 미국에서의 인종적 타자로서의 흑인의 문제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더글러스의 텍스트와의 연장선상에서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두 작품 사이의 시간적 간격 사이에 놓인 할렘 르네상스와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로 대표되는 사실적 저항소설의 성과물을 감안할 때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한 논의는 적어도 인종주의 담론 하에서의 1950년대까지의 흑인문학의 궤적을 살피는 적절한 단초가 될 것이다.

II. 노예 더글러스/작가 더글러스

자신의 출생을 다루는 *Narrative*의 첫 장에서부터 더글러스는 백인과 대조되는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

저는 델북카운티의 이스턴으로부터 12마일쯤 되는 힐스버로 근처 루커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믿을만한 기록을 본적도 없습니다. 대개의 흑인노예들이란 말이 제 나이를 모르는 만치나 자기 나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제가 아는 한에서 대부분의 노예주들은 또한 자신의 노예가 제 나이를 모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일을 아는 노예를 만나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 나이를 모르는 것이 제 어린 시절의 불행함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백인아이들은 자기의 생일을 아는데 저는 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어머니의 이름은 헤리엇 베일리입니다. 주인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있기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얘기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유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Ralph Ellison, *Invisible Man*(N.Y.: Random House, 1972), 이하 본문 인용에선 *IM*으로 표기함.

I was born in Ruckahoe, near Hillsborough, and about twelve miles from Easton, on Talbot county, Maryland. I have no accurate knowledge of my age, never having seen any authentic record containing it. By far the larger part of the slaves know as little of their ages as horses know of theirs, and it is the wish of most masters within my knowledge to keep their slaves thus ignorant. I do not remember to have ever met a slave who could tell of his birthday. A want of information concerning my own was a source of unhappiness to me even during childhood. The white children could tell their ages. I could not tell why I ought to be deprived of the same privilege . . . My mother was named Harriet Bailey. The opinion was whispered that my master was my father; but of the correctness of this opinion, I know nothing; the means of knowing was withheld from me. (Narrative, 47, 밑줄은 필자 주)

헨리 루이스 게이츠(Henry Louis Gates, Jr.)의 정밀한 분석이 보여주듯¹¹⁾ *Narrative*는 처음부터 이분법적 대조의 형식을 통해 흑인과 백인의 현실에 대해 설명한다. 인용된 부분에서만 하더라도 자신의 나이조차 알지 못하는 흑인들의 처지, 이로 인해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의존하는 흑인들의 시간관, 그리고 자신의 혈통을 확인하기 위해 모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흑인의 처지 등이 백인들의 상황과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조의 시스템 속에서 주목할 점은 백인들과 대조된 흑인의 박탈과 무지의 양상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닌 노예주의 “의지(wish)”가 개입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라는 것이다. 더글러스는 이 같은 노예주-지식/노예-무지의 구조를 통해 노예제 속에 조직적으로 만연하고 억압의 양상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더글러스의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문자 사용 능력의 획득에 대한 열망을 가져온다.¹²⁾

11) Henry Louis Gates, Jr., “Binary Opposition in Chapter One of the *Narrative*”,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N.Y.: Chelsea House, 1988).

12) “What he most dreaded, that I most desired. What he most loved, that I most hated. That which to him was a great evil, to be carefully shunned, was to me a great good, to be diligently sought; and the argument which he so warmly urged, against my learning to read, only served to inspire me with a desire and determination to learn.” (Narrative, 79)

이처럼 언뜻 단순해 보이는 문체 속에 비인간적 노예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수사를 담고 있는 더글러스에게 인종차별을 행사하는 이분법적 지배언술의 폭압성을 드러내는 효과적 수단은 그 구조 속에 진입해서 그것의 가상적이고 임의적인 성격을 드러내어 위선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인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소문”에 대한 더글러스의 언급은 노예주들에게 있어 재산적 가치로서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경우 그들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 혹은 노예들의 실상에 대한 아이러니한 고발이 된다. 더글러스의 글이 도덕적 호소력과 감동을 안기는 이유는 바로 인종차별 제도가 지니고 있는 위선적이고 비인간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글러스의 이러한 수사적 전략은 비인간적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예에 대해 열등한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우리 모두는 함께 값이 매겨졌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어린애든, 기혼이든 미혼이건 간에 말, 양, 그리고 돼지와 함께 값이 매겨졌지요. 거기에선 말과 남자, 소와 여자, 돼지와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지위를 지닌 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We were all ranked together at the valuation. Men and women, old and young, married and single, were ranked with horses, sheep, and swine. There were horses and men, cattle and women, pigs and children, all holding the same rank in the scale of being. (*Narrative*, 90.)

흑인 노예를 인간이 아닌 재산과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부담을 떨치기 위해 남부는 백인에 비해 열등하고 인간이기 보다 짐승에 가까운 존재로서의 흑인의 모습을 만들어 내어야만 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부터 흑인이란 애초에 무지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유사과학적 인종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흑인 노예는 열등한 인간의 위치로부터 짐승에 보다 가까운 지위로까지 전락하게 된다.¹³⁾ 더글러스는

13) 레너드 캐쉬토(Leonard Cassuto)는 흑인 노예에 대한 이러한 비인간적 스테레오의 타입이 결국 인간과 짐승의 중간 지대에 애매하게 위치한 흑인 노예들을 그로테스크한 존재로 만들었음을 지적한다. 이 같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형성은 인종적 타자를 설정하기 위해 인종주의 담론이 수행해야만 했던 가상적 왜곡의 구체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Leonard Cassuto, *The Inhuman Race: The Racial*

이에 대해 흑인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노예에 대해 비인간적 학대를 서슴지 않는 백인들의 모습을 통해 백인이 흑인에 대해 투영하려던 짐승의 이미지가 오히려 백인에게 보다 어울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과 동료 노예들이 가축과 동일하게 취급당하는 실상을 묘사하던 더글러스는 농장주와 농장 감독들을 사자, 호랑이, 뱀 등과 같은 맹수에 비유하고,¹⁴⁾ 심지어 탈출을 감행하여 북부에 도착한 직후의 안도감을 “끓주린 사자의 소굴로부터 도망친 자”(Narrative, 143)의 심정으로 대치시키는 것이다. 흑인노예를 열등한 인간의 존재로, 더 나아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설정하려는 백인 지배언술에 대한 아이러니한 전도를 보여주는 더글러스의 수사는 남부 백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아프리카로부터 미국으로 강제 이주 당한 그들로부터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진 한 계층이 남부에서 태어나 노예제의 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계층의 증가가 무언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하느님이 햄을 저주해서 미국의 노예제도가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만약 햄의 자손들만이 성서에 의해 노예 상태에 처해 있다면 남부에서의 노예제도는 명백히 성경의 논리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 왜냐하면 나처럼 백인 아버지를 가진 흑인 아이들이 매년 수천 명씩 태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의 아이는 대개 그들이 주인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It is nevertheless plain that a very different-looking class of people are springing up at the south, and are now held in slavery, from those originally brought to this country from Africa; and if their increase will do no other good, it will do away with the force of the argument, that God cursed Ham, and therefore American slavery is right. If the lineal descendants of Ham are alone to be scripturally enslaved, it is certain that slavery at the south must become unscriptural; for thousands are ushered into the world, annually, who, like myself, owe their existence

Grotesque in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N. Y.: Columbia UP, 1977), pp. 74-123 참조.

14) 더글러스는 Mr. Gore, Mr. Covey 같은 농장 감독들을 맹수에 비교할 뿐만 아니라, 노예 소년인 자신에게 친절함을 베풀던 Mrs. Auld의 “tender-hearted woman”으로부터 “tiger-like fierceness”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Narrative, 84).

to white fathers, and those fathers most frequently their own masters.
(*Narrative*, 50)

자신처럼 백인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고 피부색에 의한 흑백인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 몰라토들이 남부에서 계속 노예 상태로 남게 된다면 햄죽에 대한 신의 저주에 그 수사적 바탕을 갖고 있는 노예제도가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거스르게 됨을 보여줌으로써 더글러스는 노예제가 내재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준다. 노예제라는 억압 구조 속에서 노예주는 성적 착취를 용이하게 달성하지만 바로 그 착취의 결과물인 몰라토의 존재는 노예제 유지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인종적 구분을 위협하게 된다. 더글러스와 같은 몰라토의 존재는 노예제 하에서 행해진 억압과 착취의 흔적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더글러스는 지배 언술의 해석의 틀을 빌어 그 논리적 근거를 허물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문체 속에 위장된 채 노예제를 유지하는 언술 구조를 이용하여 역으로 그 구조를 허무는 더글러스의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거론한 대로 것처럼 노예제의 비인간적 실상과 위선적 속성을 폭로하기 위해 인종차별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 진입한 더글러스가 지배언술의 구도 속에 함몰될 위험성을 어떻게 비껴가고 있는가하는 논의가 필요해진다. 이런 논의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끄는 것은, 노예로서의 과거 경험 속에 그려진 더글러스의 모습이 텍스트를 집필하고 있는 작가 더글러스와 대조되어 나타나는 점이다(My feet have been so cracked with the frost, that the pen with which I am writing might be laid in the gashes. *Narrative*, 73). 텍스트의 지배적 목소리를 형성하며 텍스트의 모든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텍스트의 집필자로서의 더글러스의 목소리이다. 이 목소리는 그가 어떻게 비친한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의 길로(from slavery to freedom)” 접어들게 되었는가 하는 역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개리슨의 서문은 1841년 8월 낸터킷에서의 노예폐지 대회에 참석해서 더글러스를 처음 대면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반해, 더글러스의 텍스트는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백인 청중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 극적인 대칭구조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획득하는 더글러스의 변모 과정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¹⁵⁾ *Narrative*를 지배하는 목소리는 이처럼 자신의 과거의 비참한 노예제의 현실로부터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효과적으

15) Robert B. Stepto, *From Behind the Veil: A Study of Afro-American Narrative* (UP of Illinois, 1991) p. 25.

로 부각시키기 위해 과거의 더글러스와 현재의 더글러스를 교묘하게 병치시키며, 노예제를 벗어난 현재의 모습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 이처럼 내 책상에 앉아 자유의 즐거움과 가정의 행복을 느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대신에 나는 노예제의 쓰라린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하는 지도 모르겠다 ... 나는 이제껏 그것을 나와 항상 함께 하고 나의 삶을 신의 총애로 빛나게 한 그런 종류의 신의 섭리의 명백한 표현이라고 여겨왔다. 나는 그들 가운데 선택받았고 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유일한 선택인 셈이다.

I should have today, instead of being here seated by my own table, in enjoyment of freedom and the happiness of home, writing this Narrative, been confined in the galling chains of slavery ... I have ever regarded it as the first plain manifestation of that kind providence which has ever since attended me, and marked my life with so many favors. I was chosen from among them all, and was the first, last, and only choice. (Narrative, 75. 밑줄은 필자 주)

신의 섭리에 의해 특별한 선택을 받은 듯이 느끼는 더글러스는 이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지니게된 현재의 모습을 강조하며, 노예로서의 자신의 과거와 작가 더글러스의 현재를 대조의 구도 속에 위치시킨다.¹⁶⁾ 더글러스에게 노예로서의 과거의 경험은 성숙한 인식 능력을 갖춘 현재의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조의 수단이 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¹⁷⁾

그렇다면 이런 끊임없는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통해 더글러스가 부각시키

16) 노예제의 억압적 현실 하에서의 노예들의 생활상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노동요의 의미를 언급하는 대목(I did not, when a slave, understand the deep meaning of those rude and apparently incoherent songs. I was myself within the circle; so that I neither saw nor heard as those without might see and hear ... The mere recurrence to those songs, even now afflicts me; and while I am writing these lines, an expression of feeling has already found its way down my cheek., Narrative, 57-8. 밑줄은 필자 주)에서조차 더글러스는 과거와 현재의 명백한 대조를 시도한다. 이 대목은 노예제의 참상을 목격한 흑인 노예 출신의 작가가 자신의 과거와 흑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허무는 현재 사이의 긴장을 통해, 인종적 타자를 생산하는 지배 담론 한 가운데 위치한 타자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그 문제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17) IM의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I was my experience and my experience me”라며 자신의 과거를 적극적으로 껴안는다.

려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무지한 흑인 노예의 이미지를 벗고 백인 독자와 청중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더글러스가 탈출을 감행한 직후 그토록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정착하여 일자리를 얻는 모습은 건실한 생활인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더글러스를 보여준다. 결혼식에서 더글러스가 백인 목사로부터 부여받는 결혼 증명서는, 한때 그가 자신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위조한 통행허가증과 날카롭게 대조된다. 더구나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며 마침내 프레드릭 더글러스라는 이름을 백인으로부터 부여받는 그의 모습은, 그가 *Narrative*를 통해 형성하려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건실한 생활인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더글러스는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종교 (slave holding religion)/정통 기독교 (Christianity proper)”의 구별 (*Narrative*, 153)을 통해 그가 그토록 가증스러워해 마지않던 노예주의 위선적 기독교와 거리를 두려하고 있지만, 분명 텍스트를 통해 새로이 태어난 더글러스는 백인 독자와 청중에 의해 연설가로, 그리고 작가로 인정받기에 적합한 모습을 보인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더글러스의 백인 지배사회로의 흡수와 현재의 문맥에서 불필요해진 과거에 대한 연결고리의 완전한 제거이다. 이런 문맥에서 텍스트의 말미에 백인 청중에게 처음으로 연설을 행하는 더글러스가 경험하는 감정의 변화는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

사실은 나는 내 자신을 노예로 느끼고 있었고, 백인들에게 말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겨우 몇 번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느끼며 상당한 편안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껏 나는 내 동포들의 대의명분을 위해 항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헌신을 필요로 했는지는 내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내버려두도록 한다.

The truth was, I felt myself a slave, and the idea of speaking to white people weighed me down. I spoke but a few moments, when I felt a degree of freedom, and said what I desired with considerable ease. From that time until now, I have been engaged in pleading the cause of my brethren-with what success, and with what devotion, I leave those acquainted with my labors to decide. (*Narrative*, 151)

마주한 백인 청중 앞에서 자신을 다시금 노예처럼 느끼는 더글러스의 감정은 흑백의 대립이 상징하는 노예제의 인종차별적 연술 구조를 새삼스레 재차 대면하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순간 갑작스레 그에게 자신감과 편안함을 가져다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견실한 생활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자신으로 인해 탈주 경로가 공개적으로 밝혀질 것을 염려한다는 설명과 함께 탈주의 경로와 과정을 생략하는 대목¹⁸⁾ 역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하는 더글러스의 자신의 분별력 있고 사려 깊은 모습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더글러스의 텍스트는 적어도 노예제의 비인간적 실상과 인종차별을 지탱하는 이분법적 서열구조의 허구성을 폭로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예제가 흑인노예에게 투영하려한 이미지를 오히려 노예주에게로 향하게 한다면, 노예제 유지론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전유되던 기독교적 수사의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대목 등은 더글러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예제를 공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노예제 비판의 목소리를 얻기 위해 역설적으로 지배적 연술구조의 힘을 빌어야했던 더글러스가 자신의 텍스트를 형성해 낸 정체성은 견실한 생활인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예주에 의해 흑인노예에 투영되던 짐승의 이미지를 오히려 노예주로 향하게 하던 더글러스가, 이젠 백인의 이미지에 자신을 투영시키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종적 타자로 정의된 주체가 자신의 타자성을 부정하고 극복하는 작업은 오히려 그러한 타자성을 생산해낸 연술 구조 안에 다시 함몰될 위험성을 갖는다. 더글러스가 보여준 이러한 한계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가를 *IM*의 트루블러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III. 더글러스의 모순을 비껴가기: “It ain’t nothing but knowing how to say”

*IM*에서 주인공이 경험하는 불가시성(invisibility)이란 인종차별을 생산해내는 이분법적 서열구조에 의해 인종적 타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박탈과 소외를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계속 사용되는 ‘눈멀’의 모티프는 인종적 타

18) 노예설화에서 탈주과정과 그 경로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글러스 텍스트에서의 이 대목의 생략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자를 만들어 내는 억압 구조의 부조리함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불 가시적으로 인식하는 구조 내에서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발견해 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이르는 길임을 알게 되는 주인공의 인식(When I discover who I am, I will be free. *IM*, 185)은 설득력을 갖는다. 물론 주인공이 의도하는 이 여정 역시 더글러스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지배적 예술구조 내에서 대안적 주체를 형성하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지만, *IM*은 시종일관 그 과정에 내재한 어려움과 위험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백인에 의해 자신의 이름을 부여받는 더글러스와 달리 *IM*의 주인공의 이름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왜냐하면 주인공을 Brotherhood라는 교조적 단체의 연설가로 맞아들이며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잭(Brother Jack)의 표현처럼,¹⁹⁾ 이름을 부여받는 순간은 바로 지배적 예술구조에 의해 정체성을 강요받는 순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²⁰⁾ 지하에 떨어진 주인공이 '길을 찾기 위해' battle royal이 벌어진 날 밤 장학증서와 함께 선물로 받은 서류가방으로부터 졸업증서와 추천서를 꺼내 하나씩 태우는 장면은, 결혼증명서에 의해 거듭난 자신을 인정받는 더글러스의 모습과 대조된다.

이처럼 지배적 예술구조 내로 흡수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전략은 이 소설의 전체적인 서술구조와도 연결된다. 텍스트가 쓰여지고 있는 현재의 시간 영역에 속해 있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텍스트 속에서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주인공의 모든 경험이 다시 지배적 예술구조 내로 포함되는 것을 견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 한다. 더글러스가 과거와의 대조를 통해 현재의 자아를 의식적으로 드러내는데 비해, 엘리슨 소설의 서술자는 과거의 '경험하는 나(experiencing I)'와 현재의 '서술하는 나(narrating I)' 사이의 대조를 통해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맥락에서 재조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언급되는 '부메랑'의 이미지와 시작과 끝을 순환적 구조로 파악하는(The end is in the beginning., *IM*, 5, 431) 태도 역시 서술구조에 드러난 그러한 시간 인식에 맞닿아 있다.

더글러스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모순을 피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은 프롤

19) "This is your new identity . . . That is your new name. Start thinking of yourself by that name from this moment." (*IM*, 235)

20) 이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Kimberly W. Benston, "I yam what I am: the topos of un (naming) in Afro-American literature, *Black Literature and Literary History*, ed. H. L. Gates Jr. (N.Y. & London: Methuen, 1984).

로그에서 대마초(reefer)를 피우며 블루스를 듣던 주인공이 환각 혹은 꿈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흑인영가를 부르는 늙은 여가수와 만나는 장면에서 잘 그려지고 있다.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주인공의 질문에 그녀는 “그건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 가를 아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it ain't nothing, but knowing how to say what I got up in my head.” (IM. 9)) 라고 대답한다.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가 곧 자유를 의미한다는 여인의 대답은, 인종차별의 언술구조 내에서 “호명”당한 주체의 저항 전략이 그 구조 속에 재 흡수되지 않기 위한 자의식적 노력을 포함한, 보다 섬세한 결을 필요로 하는 성질의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이러한 전략적 모색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제2장의 트루블러드(Trueblood)에 피소드이다. 자신의 근친상간 경험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트루블러드는 전체 내러티브의 화자인 주인공이 변모하게 될 이야기꾼으로서의 모습을 예시(prefigure)하며,²²⁾ 지배 언술 내에서 일어나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상상적 관계를 드러내고, 그 “호명”의 주/객 관계를 허무는 서술전략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IV. 능숙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예술가’ 트루블러드

주인공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유력한 후원자의 한 사람인 노튼씨(Mr. Norton)를 차로 모시던 중 흑인들의 거주 지역(black-belt)으로 나오게 된다. 우연히 트루블러드의 오두막에 다다른 주인공은 낭패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는 근친상간을 저지른 트루블러드로 인해 흑시라도 이 백인 신사에게 불쾌감을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이다. 오두막 앞의 임신한 두 여인을 보며 여인들의 남편에 대해 묻던 노튼은, 머뭇거리며 한 남자에 의해 두 여인 모두가 임신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화자에 대해,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지. 난 자네들을 잘 알지. 너무 신경 쓰지 말게나!”라며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낸다. 그런데 젊은 여인이 바로 그 남자의 딸임

21) *The Bluest Eye*의 서두에도 이와 유사한 대목이 등장한다. “There is really nothing more to say-except why. But since why is difficult to handle, one must take refuge in how.” Toni Morrison, *The Bluest Eye*(N.Y.: A Washington Square Press, 1972), P. 9. 인용문의 밑줄은 필자 주.

22) Valerie Smith, “The Meaning of Narration in *IM*”, *New Essays on IM*, ed. Robert O’Mealy (N. Y.: Cambridge UP, 1988), p. 44.

을 알게 된 노튼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당사자인 트루블러드를 직접 대면하고 싶어한다.

자신의 얘기를 들려줌에 앞서 “목청을 가다듬는” 트루블러드는 이미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훌륭한 블루스 가수로서 대학에 특별한 백인 손님이 방문할 때 곧잘 초청되어 노래를 부르고곤 했다. “그게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입지요(“That’s how it started, sir.”)라며 운을 떼는 트루블러드는 자신의 근친 상간 경험을 들려주는 화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환기시키며 결국 그 경험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꿈으로 인한 죄(dream-driven sin)”가 되는 자신의 이야기의 무대를 그는 날이 너무 추워 부인과 자신의 딸 매티 루(Matti Lou)의 중간에서 잠을 자게 된 밤으로 설정한다. 트루블러드는 잠든 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딸이 어느덧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했음을 느끼게 된다. 딸을 좋아하는 소년과 딸의 관계에 생각이 미친 그는 소년을 자신의 딸에게 열썬도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잠을 못 이루며 뒤척이던 그는 부엌에 놓여 있는 ‘고기 냄새(the smell of fat meat)’를 맡게 되는데, 이후 그의 꿈에 다시 등장하는 이 고기의 이미지는 근친상간이라는 금기의 영역을 막 넘어서려 하는 관능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이처럼 자신의 딸에 젊은 시절의 아내의 모습을 투영하며 딸의 남자 친구를 시기하는 트루블러드의 모습은, 자신의 죽은 딸에 대해 은밀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품었음이 드러나는 노튼의 모습과 짝을 이룬다. 화자에게 자신의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화와 은밀한 욕망의 감정을 드러내는²³⁾ 노튼의 모습은 부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아버지의 태도로 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노튼의 어조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이기보다 실현한 연인의 탄식에 보다 가깝다. 트루블러드의 근친상간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난 후 “당신이 그 짓을 하고도 이렇게 멀쩡하단 말이요”라는 그의 반응은 자신의 은근한 욕망을 직접 실현시킨 장본인을 대면한 놀라움에 다름 아니다.

딸이 잠결에 자신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것을 느끼며 트루블러드는 꿈에

23) “A girl, my daughter. She was a being more rare, mere beautiful, purer, more perfect and more delicate than the wildest dream of a poet. I could never believe her to be my own flesh and blood. Her beauty was a well-spring of purest water-of-life, and to look upon her was to drink and drink and drink again.” (IM, 33)

빠져들게 된다. 꿈속에서 “고기”를 구하던 그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사는 브로드넥스씨(Mr. Broadnax)를 찾아간다. 브로드넥스라는 이 상징적 이름은 ‘Broad and ax’라는 의미에서²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언덕”(‘town on the hill’이라는 이상적 건국의 수사 위에 세워진 미국)에 사는 백인의 자애로운 “후한(broad)” 인심과 동시에, 흑인에 대해 가해지는 인종차별의 폭압의 이미지(ax)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도끼의 이미지는 딸을 겁탈한 트루블러드에게 그의 아내 케이트(Kate)가 휘두르는 도끼의 이미지로 이어진다. 그녀는 분명 근친상간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인물이다. 딸의 몸 위에 있는 남편을 발견한 그녀는 거둬 트루블러드에게 그만 “몸을 일으키기(Git up, UP FROM THERE!)”를 요구한다. 이 대목에서 그녀에 의해 다섯 번 사용된 “up”이라는 부사 표현은 대학총장 블레드소(Dr. Bledsoe)에게 부정적 동화론자(assimilationist)의 이미지로 투영된 *Up from Slavery*의 저자 부커 티 워싱턴(Booker T. Washington)을 떠올리게 할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당초에 흑인의 지위 향상을 가로막는 존재로 트루블러드에게 가졌던 반감(We were trying to lift them up and they, like Trueblood, did everything it seemed to pull us down. 밑줄은 필자 주)과 연결되고 있다.

브로드넥스의 집안 내부로 들어오게 된 트루블러드는 “여인의 냄새가 점점 강해지는” “온통 흰색뿐인” 침실에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의 시야에는 방 한편에 놓인 거대한 “패종시계”가 들어온다. 이 광경은 트루블러드가 백인의 침실로 상징되는 절대적 금기의 공간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트루블러드가 듣던 네 시를 알리는 대학의 시계 이미지를 환기하는 패종시계는 또한 교육제도와 같은 공식적 언술체계를 통해 교묘히 흑인들의 불가시성을 강요하는 백인의 지배체제와 연관된다. 갑작스레 나타난 반라 차림의 백인 여자의 모습에 당황한 트루블러드는 도망치려하지만 출입문은 공교롭게도 회중시계에 의해 봉쇄되어 있다.

여기서 보여지는 백인 여성에 대한 트루블러드의 당혹스런 공포감은 앞선

24) 휴스턴 베이커는 이 이름의 의미를 Mr Broad-in-acts의 의미로 파악함으로써, 브로드넥스라는 인물이 가난한 흑인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박애주의적 백인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Houston A. Baker Jr., “To Move Without Moving: Creativity and Commerce in Ralph Ellison’s Trueblood episode, *Black Literature and Literary Theory*, ed. Henry Louis Gates Jr.(Methuen, 1984), p. 226.

장의 battle royal 장면에서 나체의 백인 무희를 보며 흑인 소년들이 느끼는 당혹감을 떠올리게 한다. 복부에 작은 성조기 문신을 한 백인 무희의 나체에 대해 소년들은 쳐다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기도 힘든 곤경에 처하고, 내밀한 욕망을 주체 못한 한 소년은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권투 글러브로 가린다. IM에서 그 동안 간과되어 온 것이 흑인 남성성(black male sexuality)이란 휴스턴 베이커의 지적²⁵⁾은 이 대목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 여러 번 등장하는 흑인 남성성에 대한 거세의 모티프는 흑인 정체성에 대한 왜곡을 통해 불가시성을 조장하는 백인의 지배언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Battle royal 장면에서 나체의 백인 무희 앞에서 당황해하는 흑인 소년들에게 야유와 조소를 보내는 백인 남성 관객은 인종간의 성적 금기를 위반하는 상상적 대리만족을 즐기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백인 지배언술이 만들어낸 이른바 “흑인 강간범(black buck rapist)”이라는 허구적 이미지를 흑인 소년들의 순진한 남성성에 투영시킨 채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 모티프는 브라더후드의 한 전략가의 아내인 시빌(Sybil)이라는 백인 여성이 주인공에게 강요하는 왜곡된 흑인 남성의 이미지로 이어진다. 어려서부터 “거대한 짐승 같은 흑인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환상을 품어온 그녀는 흑인에게 겁탈 당한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며 주인공에게 같은 종류의 도착적 성행위를 요구한다. 이처럼 허구적이고 왜곡된 이미지에 의해 억압되고 거세당하는 흑인 남성성의 회복은 인종주의의 담론 구조의 틀을 허무는 작업과 밀접히 연결된다.

자신의 목을 휘감는 백인 여성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를 침대 위로 내팽개친 트루블러드는 오히려 그녀의 몸과 포개져 폭신한 침대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이때 문이 열리며 “그놈들은 점둥이니 그냥 내버려두어라(They just nigger, leave 'em do it.)”라는 브로드넥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기서 브로드넥스가 의미한 “그들” 중의 한 명이 트루블러드를 지칭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만, 그 나머지 한 명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모호하다. 지금까지 트루블러드가 들려준 꿈의 내용에 의하면 그 나머지 한 명은 그와 함께 침대에 있는 백인 여성이 되지만, 반면 트루블러드가 딸에게 저지른 근친상간의 문맥에서는 나머지 한 사람이 그의 딸이 되기 때문이다. 휴스턴 베이커의 경우에는 브로드넥스가 의미하는 “그들”을 트루블러드와 그의 딸로 보고 있지만,²⁶⁾ 그 나머지 한 명이 과연 누구

25) Houston A. Baker Jr., P. 228.

26) Houston A. Baker, Jr., p. 226. 브로드넥스가 명시적으로 “niggers”라는 표현을 사용

인가를 결정짓는 단초를 텍스트 내에서 찾기는 힘들다. 능숙한 이야기꾼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조정하고 있는 트루블러드의 모습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해석의 어려움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모호함으로 인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텍스트 내의 다양한 해석의 결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그 모호함은 다음과 같은 해석의 가능성을 통해 트루블러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구현하는 인종적 타자의 전략과 밀접히 관련된다. 트루블러드와 침대에 있는 인물이 백인 여성(아마도 브로드넥스의 부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으로써, 흑인은 근친상간과 같은 짓도 저지를 수 있다는 식의 흑인에 대한 고정적 스테레오타입의 형성이 얼마나 허구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드러난다. 이는 또한 백인 여성과 대면하여 거세의 위협 속에 “발기된 성기를 가리기에 급급한” 흑인 남성성을 회복시킴으로서 인종적 타자의 불가시성을 강요하는 백인 지배언술의 억압성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 한 양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흑인 남성과 한 침대에 있는 백인 여성의 이미지는 도착적 성욕을 주인공에게 강요하는 시빌의 이미지와 겹치며 백인이 흑인에 대해 형성한 백인 여성에 대한 잠재적 강간범이라는 이미지의 자의적이고 허구적인 속성을 폭로한다. 동시에 자신의 아내일지도 모를 백인 여성과 흑인의 성행위를 방조하는 백인의 눈땀을 통해 타자에 대해 불가시성을 강요하는 지배 언술이 바로 그 억압의 기제를 통해 자신의 불가시성을 가져올 수 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모호함에 대한 관점은 또한 브로드넥스의 백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의해 그 논리적 근거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한번 들려지는 브로드넥스의 목소리 (“They just niggugghs, leave ‘em do it.”)가 흑인 특유의 어투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음은, 엘리슨의 지적대로²⁷⁾ 인종적 타자를 만들어내는 차별화의 가상적 구조에 의해 백인의 정체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들” 중의 나머지 한 명을 트루블러드의 딸인 매티 루로 해석할 때, 매티 루의 모습은 트루블러드와의 대면을 통해 자신의 내밀한 욕망을 들켜버린 노튼의 죽은 딸의 모습과 중첩되며 묘한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7) “Out of the counterfeiting of the black American’s identity there arises a profound doubt in the white man’s mind as to the authenticity of his own image of himself.”

Ralph Ellison, *Shadow and Act*(N.Y.: Vintage Books, 1964), p. 53.

긴장감을 가져오는 아이러니는 근친상간이라는 성적 금기의 부담감이 고스란히 트루블러드의 어깨에 지워진다는 점이다. 근친상간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백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열등한 인간 내지 짐승의 위치로 강등 당한 흑인을 향해 강요되지만, 트루블러드의 이야기는 그 금기시된 욕망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트루블러드와 대면하기를 고집하던 노튼의 모습은 관음증적 욕망을 담고 있었고, 그가 마지막에 트루블러드에게 건넨 100달러 지폐는 실상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대리 실현한 자에 대한 보상과 다름없었던 셈이다.

이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트루블러드는 능청스레 인종주의 담론의 허구적 속성, 혹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호명”의 상상적 관계를 드러낸다. 이 속에서 흑인을 열등한 타자로 호명하는 주체의 자기 동일시적 정체성이라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인종주의 프로젝트의 허상이 폭로되고 있다. 인종주의 담론의 지배자란 결국 인종적 타자라는 가상적 존재의 설정을 통해 성립된 ‘타자의 타자’ 임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부재 하는 존재’, 혹은 ‘흔적’으로서의 인종주의 담론의 지배자에 대한 더글라스식의 애증의 역설은 그 가능성이 봉쇄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서술 속에 지배담론을 재구성하고 그로부터 진정한 자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트루블러드의 모습은 능란하게 이야기를 다룰 줄 아는 예술가상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²⁸⁾

그 사건이 벌어진 며칠 후 잠을 못 이룬 새벽 녘 별을 보며 찬송가를 부르던 트루블러드는 “생전 불러보지 않은” 블루스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지배담론을 허무는 전략을 형성함에 있어 주/객의 도식적 구분을 넘어서는 트루블러드의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블루스의 성격을 엘리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법을 전수 받은 자들로서 검둥이들이 비록 그것을 블루스 속에서 회화하고 있기는 해도, 흑색이면서 백색인 것, 악한 것이면서 순수한 것, 그리고 순수한 것이면서 동시에 악한 것 속에는 신비함이 내재한다.

There is a mystery in the whiteness of blackness, the innocence of evil and the evil of innocence, though, being initiates, Negroes express the joke of it in the blues.²⁹⁾

28) Vlerie Smith, pp. 49-50.

29) *Shadow and Act*, p. 53.

단순하고 무식한 소작농인 트루블러드가 들려주는 자신의 근친상간 경험과 이를 정당화하려는 듯한 꿈 이야기는 언뜻 보잘것없는 “조크”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뛰어난 블루스 가수”이자 “능숙한 이야기꾼”으로 잘 알려진 그는 분명 “비법을 전수 받은 자들(Initiates)”의 일원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흑색이면서 백색인 것”, “악한 것이면서 순수한 것” 속에 내재한 “신비”를 잘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 “신비”를 블루스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란, 바로 흑/백, 순수/악의 고착화된 정형화가 실상은 ‘타자의 타자’로서 타자성을 이미 그 속에 내재한 ‘혼적들’이 만들어낸 자의적 서열구조임을 인식하는 능력이 된다. 트루블러드가 진정 ‘순종(trueblood)’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V. “낮은 주파수”로 말하기

트루블러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전략은 화두처럼 주인공에게 던져진 그의 할아버지의 유언을 연상케 한다.

“네 머리통을 사자의 주둥이 속에 처박고 살거라. 네, 네 하면서 흰둥이 녀석들에게 멋지게 한방 먹이고 빙긋이 웃어주며 놈들의 힘을 빼야 한다. 고분고분 한 척 하면서 놈들을 죽음과 파멸로 모는 거지. 놈들이 너를 통 채로 삼키고는 마침내 토하거나 배가 터지도록 내버려두는 거다.”

“Live with your head in the lion's mouth. I want you to overcome 'em with yeses, undermine 'em with grins, agree 'em to death and destruction, let 'em swoller you till they vomit or burst wide open.”

(IM, 13-4)

트루블러드의 전략은 또한 불가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it is sometimes advantageous to be unseen, IM, 3) 그 불가시성을 만들어 내는 구조를 내부로부터 허문다는 점에서, 불가시성의 구조를 통해 가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른바 라인하티즘(Rinehartism)과 닮아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배적 언술 구조 내부로부터의 전략이 과연 대안적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회의의 대상이 된다. 트루블러드의 경우는 더글러스가 보여주듯 지배적 언술 구조 속에 다시 통합되고 마는 위험성을 비껴가고 있

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안적 저항 주체를 형성했다고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할렘 르네상스시기에 일어난 흑인 고유의 민속과 구전문학 전통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바로 이러한 구조 내 전략의 한계를 벗어나 대안적 문화 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면에서 흑인 여성 문학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조라 닐 헬스톤(Zora Neale Hurston)이 부두교에 심취하고 평생 동안 아프리카 민속 전통을 취재하는 인류학자의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런 문맥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로부터 강제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 당한 흑인 노예의 경우는, 제국주의에 의해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억압당한 식민지의 경험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흑인들의 경우에 있어 다시 회복해야 할 언어와 문화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식민지의 경험과 달리 보다 모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배와 피지배가 엄연히 실재하는 현실 속에서 억압당하고 박탈당한 흑인 고유의 문화 영역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인종적 타자성을 극복하는 전략은 결국 “사자의 입 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지배적 언술 구조 내에서의 싸움의 형태를 먼저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배 담론의 틀을 깨고 억압당한 피지배자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은 자칫 지배권력의 자기 동일시적 근원성에 대한 욕망의 형태를 답습하는 위험성을 갖기 때문이다. 더글러스가 현재의 자아에 특권을 부여하며 지배담론 내로 흡수되는 모습은 그 같은 위험성의 구체적 실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인종 국가인 미국의 상황에 대한 엘리슨의 조망을 엿보게 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은 되새겨 볼만하다.

미국은 많은 가닥으로 엮여 있는 셈이다. 내가 그 가닥들은 알아볼 수도 있을 터이지만 그냥 내버려두기로 하자. 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의 가장 위대한 진실은 바로 승자가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삶이란 결국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통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의 속성은 분명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속하는 데서 얻어진다. 우리의 운명은 매한가지이다. 이것은 예언이 아닌 사실의 단순한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조크 중의 하나는 흑인성으로부터 도망치려다 나날이 더욱 검어지는 백인과 백인이 되려 노력하다 점점 희미해지고 회색이 되어 가는 흑인을 구경하는 일이 될 것이다.

America is woven of many strands; I would recognize them and let it so remain. It's "winner take nothing" that is the great truth of our

country or of any country. Life is to be lived, not controlled; and humanity is won by continuing to play in face of certain defeat. Our fate is to become one, and yet many — This is not prophecy, but description. Thus one of the greatest jokes in the world is the spectacle of the whites busy escaping blackness and becoming blacker every day, and the blacks striving toward whiteness, becoming quite dull and gray. (*IM*, 435-6)

“승자가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미국적 상황은 자기 정체성 확보를 위해 근원성에 집착하는 것이 그 출발에서부터 불가능한 욕망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지적된 두 종류의 조크는 모두 그러한 불가능한 욕망이 초래할 수 있는 희극적 결과가 될 것이다. 미국이라는 다인종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가닥”은 결코 독립적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들이 아니다. 그 가닥은 서로 간의 관계의 얽힘과 꼬임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따라서 부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IM*의 주인공이 ‘동면’ 상태에서 깨어나 ‘지상으로 나아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직시하면서도’²⁹⁾ 여전히 지하에 머무르는 것은 영원한 미결정의 상태를 강조하거나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집착이 가져올 근원성의 논리적 오류를 경계하는 엘리슨의 최상의 결론으로 읽혀진다.

한편 주인공의 이러한 미결정의 상태는 엘리슨이라는 뛰어난 작가가 한 편의 소설밖에 쓰지 못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³⁰⁾ 주인공이 지상으로 나아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의 성격 규정이 자칫 근원성에 대한 집착과 이로 인한 고착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러한 성격 규정은 부단한 조정과 재정의의 과정에 놓여야 한다. 예를 들어 60년대에 일기 시작한 대항 문화의 물결과 흑인인권 운동의 성과물이 인종주의의 역학관계에 가져온 변화를 염두에 둘 때, 자신의 다음 작품이 *IM*의 속편 성격을 띠 것이라 공언했던 엘리슨이 차기 작을 구상함에 있어 겪었을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가닥”으로 얽여있고 “승자가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는” 인종주

29) “Perhaps that’s my greatest social crime, I’ve overstayed my hibernation, since there’s a possibility that even an invisible man has a socially responsible role to play.” (*IM*, 439)

30) 천승걸, 『미국 흑인소설에 있어서의 개인과 사회』, 『현대미국 문학론』, 김종운 외 공저(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p. 273-4.

의의 상황을 역설한 엘리슨에게 있어 후속 작을 둘러싼 기대에 대한 답변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맥락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 낮은 주파수로 말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Who knows but that, on the lower frequencies, I speak for you?)”라는 *IM*의 마지막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읽힌다. 엘리슨은 마지막 문장을 통해 인종주의의 구조를 허물기 위해 도식적으로 차이를 강조하거나 역설적으로 근원성에 대한 집착을 답습하기 쉬운 ‘높은 주파수’의 목소리를 경계하며, 그 위협의 극복을 위해 자신이 펼쳐 보인 전략의 섬세한 결에 대한 이해를 독자에게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헌

- Althusser, Loui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 Ben Brewster. N.Y.: Monthly Review Press, 1971.
- Baker, Houston. “Autobiographical Acts and the Voice of the Southern Slave” in Harold Bloom, pp. 95-112.
- . “To Move Without Moving: Creativity and Commerce in Ralph Ellison’s *Invisible Man*” in Henry Louis Gates, pp. 212-238.
- Balibar, Etienne.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Trans. Chris Turner. N.Y.: Verso, 1991.
- Bhabha, Homi. “The Other Question”. *Screen* 24, 1983.
- Bloom, Harold, ed.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N.Y.: Chelsea House: 1988.
- Cassuto, Leonard. *The Inhuman Race: The Racial Grotesque in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N.Y.: Columbia UP, 1977.
- Derrida, Jacques. “Différance”,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1982.
- Douglass, Frederick.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an American Slave*. Penguin, 1982.
- Ellison, Ralph. *Invisible Man*. N.Y.: Random House, 1972.
- . *Shadow and Act*. N.Y.: Vintage Books, 1964.
- Ferguson, SallyAnn H. “Christian Violence and the Slave Narrative”. *American Literature* 68, 1996.

Gates, Henry Louis. “Binary Opposition in Chapter One of the *Narrative*” in Harold Bloom, pp. 59-76.

_____. ed. *Black Literature and Literary Theory*. Methuen, 1984.

Morrison, Tony. *The Bluest Eye*. N.Y.: A Washington Square Press, 1972.

O’Mealy, Robert., ed. *New Essays on Invisible Man*. N.Y.: Cambridge UP.1988.

Smith, Valery. “The Meaning of Narration in *Invisible Man*” in Robert O’Mealy, pp. 30-54.

Stepto, Robert. *From Behind the Veil: A Study of Afro-American Narrative*. UP of Illinois, 1991.

천승걸, 「미국 흑인소설에 있어서의 개인과 사회」, 『현대미국 문학론』, 김종운 외 공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55.